

이재명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수순

영장청구→법원 체포동의안 송부→대통령 재가→국회 제출 내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정부 절차만 속도 붙으면 이달 21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후 취재진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 지, 늦게 할 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달 21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의 요청의 절차) 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의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당초 이달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요건에 맞는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달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전망에 대해선 “25일 본회의 개최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것이라 확정적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여야는 이달 1일 정기국회 일정 합의 당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1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로 예정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달 25일 추가로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고 정했다. ‘필요할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21일 표결에 더 무게가 실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윤석열검사독재정권의 폭거” “파렴치”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검찰행보에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를 제외하면 ‘부결 당론 채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적인 논의를 해서 확인하거나 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나. 8월 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이걸 타이밍 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석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도 있고”라며 “여론의 변곡점이 있는 시기를 앞두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청구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배임 관련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 송금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소환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선욱기자

서동욱 도의장, 전남 청소년박람회 참석 “진로 탐색·잠재력 발견 계기 되길 바래”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최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자연을 품은 전남!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비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명창한도 행정부지사, 김대중 도 교육감,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최선언, 청소년 대표 환영사, 세레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

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꿈을 꾸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꿈과 열정이 가득한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찾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민주, 국회 상임위 줄줄이 취소...여당 “대단히 유감”

여당 “국회 일정 협조 않겠다는 의사” 민주 “이균용 청문회 개최여부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도중 병원 이송으로 이날 개최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정감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정을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고 국정감사도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서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과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거부)으로 회의 20분 만에 종료됐다.

국방위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공개돼 같은 달 26일 시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성립됐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 지명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 일정을 일반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으며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오후 2시로 늦춰졌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2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하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